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8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4.24~2025.04.30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중국,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 추가 최적화 발표	7
- 쑤야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위한 다각적 노력 박차	7
- 후베이성, 세계적 문화 관광 목적지 건설 총력	8
- 광시 자치구, 아세안과 광업 분야 협력 지속 강화 발표	9
- 상하이 블록체인 평가 센터 출범, 공공 서비스 융합 가속화	9
-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경제 안정 및 대외 개방 의지 강조	10
- 중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사상 첫 화력 발전 추월	11
- 중국, 완전한 인공지능 산업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11
- 중국 원자력 발전, 대규모 건설 최고조... 건설 중 용량 세계 1위	12
- 광둥성, 환경 보호 분야 다각적 조치로 고품질 발전 지원	13
▪ 일본	
- 리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수리 공장 신설 협정 체결	13
- 도쿄도, 트럼프 관세 영향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14
- 2025년도 도도부현 예산, 21개 지역 방재 사업 중점 편성	15
- 규슈 전력 수요 예상 초과, 반도체·데이터센터 유치 영향	16

- 군마현 버스, 얼굴 인증 승하차 실험... 운임 결제 목표	16
- 오키나와현 숙박세 조례안, 6월 의회 제출 보류 결정	17
- 나가사키현, 탈탄소 위한 민관 협의회 설립... 해상풍력 등 협력	18
- 후쿠오카현, 트럼프 관세 영향 기업 발생... 2차 대책 협의회 개최	18
- 시즈오카현 기업 51%, 인력 부족으로 '부정적 영향' 경험	19
- 홋카이도 전력, 스나가와시·나이에초와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등 협력 협정	20

■ 태국

- 태국 수출입은행, 美 관세 영향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21
- 태국 3월 수출 17.8% 증가, 9개월 연속 성장 및 3년래 최고치	21
- 태국 내각, 외국기업법 개정안 승인... 투자 환경 개선 박차	22
- 태국 정부, 美 관세 대응 5천억 바트 규모 경기부양책 검토	22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26년까지 관광객 3,560만 명 유치 목표 설정	23
- 말레이시아, 美 관세 압박 속 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24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MCMC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협약	24

■ 필리핀

- 필리핀, 2040년까지 51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기	25
- 필리핀, 누에바에시하 농기계 산업단지에 한국 투자 유치 추진	26

■ 베트남

- 베트남, 美 관세 회피 목적 불법 환적 단속 강화	26
-------------------------------------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 추가 최적화 방안 발표, 환급 상점 확대와 상품 다양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목표, 최소 구매 금액 기준 5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하향 조정과 현금 환급 한도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 싼야시의 2025년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목표 설정과 '1+4+2' 프레임워크 기반 종합 계획 추진, 23개 개혁 조치 시행 예정, 관광·현대 서비스·열대 특색 고효율 농업·하이테크 등 4대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한 22개 개혁 조치 추진
- ✓ 후베이성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관광과 여러 산업 간 깊은 융합 추진 하는 '융합 관광' 발전을 통한 세계적 문화 관광 목적지 건설 가속화 계획, '520100' 관광지 브랜드 체계 구축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보편적 적용
- ✓ 광시 자치구의 2025년 5월 '중국-아세안 광업 협력 대회' 및 '광시 국제 광업 전시회' 개최 발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광업 특별 설명회 통한 현지 광업 협력 촉진 계획, 희토류·보크사이트·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 상하이 블록체인 평가 센터 공식 출범, 수통체인밸리와 중국전자기술 표준화연구원 협력 설립, 국가 표준 기반 업계 전반 블록체인 평가 서비스 제공 및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과 공공 서비스의 깊은 융합 적극 추진 의지 표명
-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예상보다 이른 개최로 현 경제 상황의 중요성 시사,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 강조, 거시

정책 기조 유지하되 정책 집행 시급성 강조, 내수 진작과 고품질 발전 및 대외 개방 통한 외부 불확실성 대응 전략

- ✓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총용량 14억 8200만 킬로와트로 사상 처음 화력 발전 설비 용량 14억 5100만 킬로와트 넘어섬, 2025년 1분기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 합계가 전체 사회 전력 사용량의 22.5% 차지,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39.8%로 상승
- ✓ 중국의 기초층·프레임워크층·모델층·응용층 포괄하는 완전한 인공 지능 산업 시스템 구축 완료, AI 칩과 대규모 언어 모델 통합한 세계 최초 차세대 지능형 수치 제어 시스템 자체 개발, AI 특허 출원량 157만 건 이상으로 전 세계의 38.58% 차지
- ✓ 중국 원자력 발전의 대규모 건설 최고조 진입과 건설 중인 원전 설비 용량 18년 연속 세계 1위 유지, 상업 운전 중인 원전 58기와 건설 중인 원전 44기로 총 규모 세계 1위, 2030년 이전 운전 중 원전 규모 세계 1위 예측
- ✓ 광둥성 생태환경청의 '성 전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발표, '생태-산업-시장' 삼위일체 정책 시스템 구축 목표, 산업 공간 배치 최적화와 녹색 전환 가속화 등 4가지 주요 방향 아래 9개 중점 조치 포함

○ 일본

- ✓ 기계 상사 릅스의 구마모토현 니시하라촌 반도체 관련 수리 공장 건설 결정과 기업 입지 기본 협정 체결, 6,500제곱미터 부지에 9천7백만 엔 투자 계획, 2026년 10월 공장 가동 목표와 2027년 서비스 개시 및 10~15명 규모 신규 고용 예정
- ✓ 도쿄도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및 판로 개척 지원 대상 확대 발표, 매출 5% 감소 요건 완화하여 최근 매출 실적이나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도 지원 대상 포함, 국내외 전시회 출전 비용 보조 등 판로 개척 지원책 마련

- ✓ 2025년도 도도부현 예산 편성 설문 조사 결과, 46개 중 21개 지역이 '방재·감재·부흥' 사업에 중점, 노토반도 지진과 오쿠노토 호우 피해, 난카이 해곡 임시 정보 발표 등으로 재해 대비 시급성 인식 증대, '육아 지원·저출산 대책·여성 활약'이 최다 선택 항목
- ✓ 규슈 지역 전력 수요의 에너지 절약 및 인구 감소 예상과 달리 확대 추세,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반도체 산업 집적과 데이터센터 신설이 주요 원인, 규슈전력과 서부 가스 홀딩스의 기타큐슈시 LNG 히비키 화력 발전소 공동 건설과 규슈전력 송배전의 대규모 송전망 정비 및 갱신 계획 추진
- ✓ 군마현 간에츠 교통과 트랜잭션 미디어 네트워크스의 노선 버스 이용객 승하차 얼굴 인증 기술 실험 진행, 시부카와역과 이카호 온천 잇는 노선 등 2개 노선에서 3일간 실시, 2028~29년경 운임 결제 시스템으로 실용화 목표, 전국 교통 IC 카드 시스템 도입 및 갱신 비용 부담 해결과 향후 자율주행 버스 도입 대비 기대
- ✓ 오кина와현 다마키 데니 지사의 숙박세 도입 조례안 6월 현 의회 제출 보류 공식 발표, 도서 지역 주민의 병원 진료 등 목적 방문 숙박 과세 제외 요구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조정 필요, 당초 1인 1박당 2% 정률 기본 숙박세 개요와 2026년 시행 목표 계획 차질 가능성
- ✓ 나가사키현의 산업·행정·학계 리더 참여 '나가사키 서밋' 개최와 '나가사키 카본 뉴트럴 연락 조정 회의' 신설 결정, 해상풍력 발전 관련 산업 진흥과 나가사키항 탈탄소화 목표, 나가사키현 내 주요 경제 단체와 주하치신와 은행, 나가사키현청, 나가사키시청, 나가사키 대학 등 핵심 기관 참여
- ✓ 후쿠오카현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영향 대응 위한 제2차 종합 대책 협의회 개최, 현내 일부 기업 영향 보고와 특별 용자 제도 운영 계획 및 기업 대상 실태 파악 설문 조사 계획 설명, 5월 중 1만 개 기업 대상 조사 실시 및 5월 말까지 결과 분석 예정

- ✓ 시즈오카현 기업 51.3%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경험, 대기업(57.1%)이 중소기업(51%)보다 더 큰 영향, 산업별로 건설업(77.8%)과 제조업(57.1%)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 '기존 직원의 작업 부담 증가'(52%)와 '노동 시간 증가'(40%), '수주나 내점 예약 거절'(38.7%) 등이 주요 영향
- ✓ 홋카이도 전력의 스나가와시·나이에초와 지역 탈탄소화 촉진 및 폐지 예정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방안 모색 위한 포괄적 연계 협정 체결, 2027년 3월 가동 중단 및 폐지 결정된 발전소 부지에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 유치 등 공동 검토 계획,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및 지역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방침

○ 태국

- ✓ 태국 수출입은행의 미국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약 3,700개 태국 중소기업의 피해와 76억 달러 규모 수출 손실액 추산, '수출 클리닉' 설립과 부채 상환 기간 연장·유동성 지원·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및 대출·수출신용보험 제공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지원 계획
- ✓ 태국 3월 수출액의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와 9개월 연속 성장세 및 최근 3년 내 최고 증가율 기록, 미국 수출 34.3%와 중국 수출 22.4% 급증, 무역수지 9억 7,000만 달러 흑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각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 2~3% 수출 증가 전망
- ✓ 태국 내각의 외국기업법 개정안 최종 승인, 투자 환경 개선과 낮은 규제 철폐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초점, 기존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49% 제한 규정 개정과 기업 '보호'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

- ✓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신임 재무부 장관의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대응 위한 5,000억 바트 규모 경기부양책 필요성 발표, 내수·투자 촉진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중점, 7월까지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미타결 시 36% 관세 부과 위기와 경제성장률 최대 1% 포인트 하락 가능성 경고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의 관광객 유치 목표 상향 조정, 2024년 2,500만 명 실적 바탕으로 2025년 3,140만 명과 2026년 3,560만 명 유치 계획, 2025년까지 관광 수입 1,255억 링깃 달성 목표와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캠페인 위한 190만 링깃 투입 홍보 영상 제작 완료
- ✓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기간 중 양국 30여 개 양자 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 관계 심화, 디지털 혁신·인공지능·위성항법 시스템·녹색 기술·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 협력
- ✓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 정부와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간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 범위 확대 위한 양해각서 체결, 중앙 정부의 향후 2년간 총 3억 링깃 투자 계획

○ 필리핀

- ✓ 세계은행의 필리핀 노동 시장 성장 촉진 개혁 성공적 시행 시 2040년까지 최대 51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생산성·혁신 촉진 필요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개선 등 주요 도전 과제
- ✓ 프란시스코 티우 라우렐 필리핀 농업부 장관의 누에바에시하 주 농기계 산업단지 투자 유치 위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방문과 논의 진행, 한국 농기계 기업들과의 투자 협력 및 필리핀 주요 고부가가치 작물 특화 농기계 생산 방안 협의

○ 베트남

- ✓ 베트남 통상부의 미국 및 기타 주요 교역국 향하는 상품의 불법 환적 행위 단속 위한 새로운 지침 발표, 미국 관세 부과를 둘러싼 긴장 고조와 제3국 통한 우회 수출 등 무역 사기 증가 가능성 대비 선제적 조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 추가 최적화 발표 - 중국 상무부가 외국인 여행객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 추가 최적화 방안을 발표함. 세금 환급 상점 확대, 상품 다양화,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설정함.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편중된 환급 상점 문제를 해결하고, 인기 관광 도시 내 상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국제 통용 규칙에 맞춰 정책 개선 의지 피력 - 새로운 정책은 환급 상점의 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둠. 대형 쇼핑몰, 보행자 거리, 관광지, 리조트, 문화 시설, 공항, 여객 항만, 호텔 등에 환급 상점 증설을 장려함. 최소 구매 금액 기준을 기존 5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 이는 소규모 특산품점, 기념품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국 토산품 판매 촉진 효과 기대 - 상품 공급 측면에서는 라오쯔하오(老字号, 오래된 전통 브랜드), 무형문화유산 제품, 지역 특산품, 스마트·건강·패션 소비 명품, 귀차오(国潮, 자국 문화 트렌드) 상품 등 중국 특색 우수 제품 공급 확대를 추진함. 현금 환급 한도를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바일 결제, 카드, 현금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통한 환급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여 여행객 편의 증진 도모
	○ 쑤야시,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위한 다각적 노력 박차 - 중국 하이난성 쑤야시가 2025년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1+4+2' 프레임워크 기반의 종합 계획 추진을 발표함. 핵심은 '쑤야시 2025년 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실행 방안'으로, 지표 개선, 산업 서비스 향상, 기업 만족도 제고, 영향력 확대 등 4개 프로젝트와 기업 전 생애주기 지원 및 역사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문제 해결 등 2개 특별 행동 포함 - 세계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하이난 자유무역항 평가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외 최고 수준 도시 지표에 맞춰 23개 개혁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특히 국제 무역 서비스, 행정 서비스 편의성, 신용 정보 통합 관리 분야에서 국내 및 성내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기업 경영 활동의 근간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 관광, 현대 서비스, 열대 특색 고효율 농업, 하이테크 등 4대 주도 산업 육성을 위해 22개 개혁 조치를 추진함. 관광 시장 감독 강화, 전문 중개 서비스 기관 육성, 종자 자원 수출입 서비스 개선, 농산물 지역 공동 브랜드 강화 등을 포함함. 기업 만족도 조사,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 설정
	○ 후베이성, 세계적 문화 관광 목적지 건설 총력 - 중국 후베이성이 문화와 관광, 그리고 관광과 여러 산업 간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는 '융합 관광' 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관광 목적지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문화 관광 브랜드 혁신, 서비스 품질 향상, 이미지 제고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계 발전 구도 형성 목표 설정 - 핵심 전략으로 '520100' 관광지 브랜드 체계 구축을 추진함. 대 황학루, 우당산, 창장삼협, 선농자, 언스대협곡 등 5곳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 20개의 5A급 관광지 및 100개의 우수 관광지를 동시에 건설함. 또한 '선우샤', '츠황홍' 등 2개의 국제적 고급 관광 노선 개발. 우한을 국제 도시 관광 도시로, 상양, 이창 등을 국제 특색 관광 도시로 지원 육성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주요 관광지에 보편적으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적용하여 몰입형 체험과 상황 기반 소비를 촉진함. 과학기술 단지, 연구개발 기지, 과학기술 전시관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 '클라우드, 네트워크, 단말기' 인프라를 주요 도시에 구축하여 스마트 관광 환경 조성. 고속도로 확장 및 수상 관광 교통 체계 개선으로 '빠른 진입, 느린 여행' 교통망 완성 계획
	○ 광시 자치구, 아세안과 광업 분야 협력 지속 강화 발표 - 중국 광시 좡족 자치구 자연자원청이 2025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5 중국(광시)-아세안 광업 협력 대회'를,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시 국제 광업 전시회'를 난닝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함. 아세안 국가 광업 주관 부처 고위 관리, 국제 연구기관, 저명 학자 등을 초청하여 광업 분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일대일로 협력 심화, 중국-아세안 광업 고품질 발전 공동 촉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개막식 및 6개 주제 세미나 등 20여 개 중요 활동으로 구성됨. 특히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광업 특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투자 환경, 법률 정책, 유망 프로젝트 소개를 통해 중국 기업의 현지 광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 - 대회 기간 중 일부 아세안 국가와 지질, 광산 자원 관련 협력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며, 희토류, 보크사이트, 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 '중국-아세안 광업 협력 발전 보고서' 발표 및 아세안 광업 관리 및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정. 또한 15개 이상 프로젝트 현장 설명 및 10개 이상 프로젝트 현장 계약 체결 목표 설정
	○ 상하이 블록체인 평가 센터 출범, 공공 서비스 융합 가속화 - 상하이 블록체인 평가 센터가 4월 27일 공식 출범함. 이 센터는 수통체인밸리(数通链谷)와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CESI)이 협력하여 설립했으며,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업계 전반에 블록체인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는 상하이 정안구가 블록체인 산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생태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과 스마트 계약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 및 공공 서비스 분야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함.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원은 기술 구현 및 지역 간 협력에 있어 '표준 우선'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함. 센터 설립은 이러한 표준화 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출범식과 함께 열린 '징안구 블록체인 산업 고품질 발전 대회 및 블록체인+공공 서비스 시나리오 마켓플레이스' 행사에서 징안구는 블록체인 산업 혁신 허브 조성을 목표로 기술과 공공 서비스의 깊은 융합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밝힘. 상하이시 데이터산업협회, 상하이블록체인기술협회가 입주하여 향후 산업 교육, 경진대회 등을 공동 개최할 예정
	○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 경제 안정 및 대외 개방 의지 강조 -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개최되어 현 경제 상황의 중요성을 시사함. 1분기 5.4% 경제 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했으나, 지속적인 회복 기반 강화 및 외부 충격 증대 상황 속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됨. '국제 경제무역 투쟁(斗争)'이라는 새로운 표현은 국제 정세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반영함 - 회의는 '취업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안정'을 강조하며 특히 외부 충격 속 민생 최우선 과제인 취업 안정을 첫 번째로 언급함. 거시 정책 기조는 기존의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유지하되 '서둘러 시행'과 '충분히 활용'을 추가하여 정책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함.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등 정책 실행 속도 가속화 -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예비 정책 적시 출시', '초과적인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역주기 조절 강화' 등 추가 정책 여지를 남겨둠. 내수 진작을 위해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 서비스 소비 발전, 소비 제한 조치 철폐, '두 가지 신규'(설비 갱신, 소비재 교환) 및 '두 가지 중대'(중대 프로젝트) 정책 강화 등을 제시함.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 전략 재확인
	○ 중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사상 첫 화력 발전 추월 - 중국 국가에너지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총용량이 14억 8200만 킬로와트(풍력 5억 3600만, 태양광 9억 4600만)에 도달하며 사상 처음으로 화력 발전 설비 용량(14억 5100만 킬로와트)을 넘어섬. 1분기에만 풍력과 태양광 신규 설비가 7433만 킬로와트 증가한 결과 - 이러한 추세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의 지속적인 급증세에 힘입어 앞으로 상시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중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 가능하며, 에너지 구조 전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됨.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 전망 - 2025년 1분기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 합계는 5364억 킬로와트 시로, 전체 사회 전력 사용량의 22.5%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 포인트 증가함. 이로 인해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39.8%로 4.8% 포인트 상승함. 풍력·태양광 발전량 증가분(1110억 kWh)이 전체 전력 사용량 증가분(582억 kWh)을 크게 상회한 점이 주목
	○ 중국, 완전한 인공지능 산업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 - 중국이 기초층, 프레임워크층, 모델층, 응용층을 포괄하는 완전한 인공지능(AI) 산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함. 올해 들어 AI 기초 연구 강화와 응용 중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하며 신기술이 구체적인 응용 시나리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속속 등장 - 대표적인 사례로, AI 칩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차세대 지능형 수치 제어(CNC)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공작기계 정밀도를 기존 마이크로미터 수준에서 30% 향상시키고 가공 효율도 5~10% 높임. 또한 저장성의 한 병원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 매일 3만 건 이상의 검사 보고서에서 고위험 환자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 구축 - 2025년 4월 9일 기준 중국의 AI 특허 출원량은 157만 건을 넘어서며 전 세계의 38.58%를 차지, 1위를 기록함. 400개 이상의 국가급 '작은 거인' AI 기업을 육성했으며, 이는 전 세계 AI 산업 규모의 10분의 1에 해당함. 올해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 AI 기금을 설립하고 40여 개 산업 표준 및 10여 개 국제 표준을 제정하며 산업 생태계 최적화 추진 ○ 중국 원자력 발전, 대규모 건설 최고조.. 건설 중 용량 세계 1위 - 중국 원자력 발전이 대규모 건설 최고조 시기에 진입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설비 용량은 18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 핵능행업협회(CNEA) 국제 포럼에서 발표됨. 현재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 31기, 건설 승인 대기 중인 원전 13기가 있으며, 향후 추가 승인이 예상되어 건설 규모는 다른 모든 국가의 합계를 능가할 전망 - 현재 중국에서 상업 운전 중인 원전은 58기(60.96GW), 건설 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원전은 44기(52.35GW)로 총 원전 규모는 이미 세계 1위로 올라섬. 2025년 중국 핵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전 중국의 운전 중 원전 규모는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를 명확히 반영 - 다만 고온가스로 등 4세대 원자로의 기술 성숙도, 운영 안정성,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경제성 확보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음. 또한 대규모 건설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사의 주체적 책임 강화, 화룽·귀허 등 주력 노형의 표준화 설계 조속 완료, 공급망 품질 보증 체계 확보, 용접·비파괴검사 등 핵심 인력 양성이 중요 과제로 제시 ○ 광둥성, 환경 보호 분야 다각적 조치로 고품질 발전 지원 - 중국 광둥성 생태환경청이 '성 전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하고, 주요 협력 플랫폼(형친, 첸하이, 난사, 허타오 등)을 중심으로 국경 간 녹색 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분야 협력 심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이는 '생태-산업-시장' 삼위일체 정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 제시 - 이번 조치는 산업 공간 배치 최적화, 산업의 녹색 전환 가속화, 산업에 대한 생태적 역량 강화,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서비스 보장 강화 등 4가지 주요 방향 아래 9개 중점 조치를 포함함. 특히 '생태+' 개념을 도입하여 어업, 문화관광, 농업, 환경 건강 등 다양한 분야와 생태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광둥성의 환경 보호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환경 보호 관련 영업 수입 총액 1965억 위안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성 GDP 기여도 역시 2018년 1.2%에서 2023년 3.5%로 꾸준히 증가함. 향후 관련 법규 및 표준 제정, 고품질 발전 지침 발표, 산업 신용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환경 보호 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일본	○ 릭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수리 공장 신설 협정 체결 - 기계 상사 릭스가 구마모토현 니시하라촌에 반도체 관련 수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25일 해당 지역과 기업 입지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함. 이는 릭스의 구마모토현 내 첫 공장 건설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펌프, 전원 장치 등 주변 기기의 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예정임. 대만 TSMC 등 반도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체 기업 진출이 활발한 구마모토현에서의 현지 수리 서비스에 대한 높은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판단 - 신규 공장 부지 면적은 6500제곱미터이며, 토지 취득액은 9천7백만 엔으로 책정됨. 공장은 '도리코 지구 신공업단지(가칭)' 내에 건설될 예정이며, 대만 TSMC의 제1공장이 위치한 기쿠요마치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함. 릭스는 2026년 10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도 중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신규 고용은 10명에서 15명 규모로 예정 - 릭스 홍보 담당자는 기존 수리 서비스 거점이었던 미에현에 더해 구마모토현에도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반도체 산업 집적지인 구마모토에 직접 거점을 마련하여 고객 대응 속도를 높이고 현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됨. 이는 물류 및 시간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도쿄도, 트럼프 관세 영향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 확대 - 도쿄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및 판로 개척 지원 대상 확대를 25일 발표함. 이는 관세 인상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도쿄도 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의사 표명 -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기존 융자 제도 대상에 미국의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기업을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의 절반을 보조하기로 결정함. 기존에는 매출 5% 감소가 주요 요건 중 하나였으나, 최근 매출 실적이나 전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또한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책도 마련함. 경영 분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전시회 출전 비용을 보조함. 더불어 해외에 신규 거점을 마련하거나 판매 계획을 재검토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이케 지사는 예산을 기동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
	○ 2025년도 도도부현 예산, 21개 지역 방재 사업 중점 편성 - 닛케이 글로컬의 설문 조사 결과,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잠정 예산 상태인 후쿠오카현을 제외한 46개 도도부현 중 21곳이 '방재·감재·부흥'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4년도 3위에서 상승한 결과로,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9월 오키노토 호우 피해, 난카이 해곡 임시 정보 발표 등이 재해 대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결과로 분석 - 예산 중점 분야 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육아 지원·저출산 대책·여성 활약'이었으며, 이는 9년 연속 출생아 수 감소 등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을 반영함. 3위는 '산업 진흥·창업 지원·고용 대책·기업 유치'가 차지했고, 4위에는 '이주 지원·인구 감소 대책'이 오름. 반면 '인프라·공공시설 유지·정비'는 3개 부현만이 선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 - 구체적인 방재 사업으로는 노토반도 지진 교훈을 반영한 지원 경로 확보 목적의 도로 및 교량 정비, 광역 방재 거점 및 도시 공원 정비가 두드러짐. 기후현의 자재 비축 거점 확충, 나라현의 남부 중핵 거점 정비, 도쿠시마현의 종합 운동 공원 야구장 개축(피난소 활용), 오사카부의 3대 수문 갱신, 고치현의 우라도만 3중 방호 대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규슈 전력 수요 예상 초과, 반도체·데이터센터 유치 영향 - 규슈 지역의 전력 수요가 에너지 절약 및 인구 감소로 인한 감소 추세 예상을 뒤엎고 예상을 상회하며 확대되고 있음. 이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집적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요금에 매력을 느낀 데이터센터 신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수요 예측 모델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산업 활동의 근간인 전력 안정 공급 유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예상보다 빠른 수요 증가는 장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변동성이 큰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와 맞물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과제가 산적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슈전력과 서부 가스 홀딩스는 기타 규슈시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히비키 화력 발전소를 공동 건설 중이며, 2026년 3월 완공 목표 -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슈전력 송배전은 대규모 송전망 정비 및 갱신 계획을 추진 중임. 이는 '100년의 계획'으로 불리며, 노후 송전선 교체뿐 아니라 유지보수가 어려운 산악 지형 등에 소형 모노레일을 도입하여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혁신적인 방식을 포함한 장기적인 관점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
	○ 군마현 버스, 얼굴 인증 승하차 실험… 운임 결제 목표 - 군마현 시부카와시에 본사를 둔 버스 회사 간에츠 교통이 전자 결제 서비스 기업 트랜잭션 미디어 네트워크(TMN)와 협력하여, 노선 버스 이용객의 승하차를 얼굴 인증으로 파악하는 기술 실험을 진행 중임. 승차와 하차 시 차내에 설치된 인공지능(AI) 카메라로 승객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이용 구간을 판별하는 방식임. 최종 목표는 2028년에서 29년경 운임 결제 시스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템으로 실용화 실현 - 실험은 시부카와역과 이카호 온천을 잇는 노선 등 2개 노선에서 총 3일간 진행됨. 대형 및 중형 버스 각 1대에 소형 인공지능 보드를 탑재한 컴퓨터와 인공지능 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함. 승차 시 천장 카메라로 얼굴을 등록하고, 하차 시 운임함 옆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등록된 정보와 대조, 승하차 지점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현재 개인 정보 연동은 하지 않는 실정 - 현재는 승객이 고개를 숙이는 등 얼굴 촬영이 어려운 경우 등록되지 않는 문제점과, 통신 환경에 따른 데이터 전송 불안정성 등이 과제로 남아있음. 간에츠 교통은 전국 교통 IC 카드 시스템 도입 및 갱신 비용 부담, 운전자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향후 자율주행 버스 도입에도 대비하기 위해 얼굴 인증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에 큰 기대
	○ 오키나와현 숙박세 조례안, 6월 의회 제출 보류 결정 - 오키나와현의 다마키 데니 지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세 도입을 위한 조례안의 6월 현 의회 제출을 보류한다고 2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함. 제출 보류의 주된 이유는 오키나와 본섬 등지에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숙박하는 도서 지역 주민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 - 오키나와현은 2024년 검토위원회를 통해 1인 1박당 2%의 정률을 기본으로 하는 숙박세 개요를 마련하고, 2026년도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왔음. 그러나 이번 조례안 제출 연기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시행 시기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과세의 형평성 확보와 특정 주민 집단의 부담 경감 사이에서 신중한 조율이 요구되는 상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현은 당초 과세 면제 대상 없이 모든 숙박객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의료 접근성 등 필수적인 이유로 본섬을 방문해야 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짐. 다마키 지사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세 면제 가능성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차기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힘
	○ 나가사키현, 탈탄소 위한 민관 협의회 설립... 해상풍력 등 협력 - 나가사키현의 산업, 행정, 학계 리더들이 참여하는 '나가사키 서밋'이 25일 개최되어,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 관련 산업 진흥과 나가사키항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나가사키 카본 뉴트럴 연락 조정 회의'를 신설하기로 결정함. 이는 지역 차원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 - 신설되는 연락 조정 회의에는 나가사키현 내 주요 경제 단체, 주하치신와 은행, 나가사키현청, 나가사키시청, 나가사키 대학 등 핵심 기관들이 참여할 예정임. 올여름까지 공식 출범하여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지역 내 시너지 창출이 기대 - 나가사키현 내에서는 이미 고토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며, 사이카이시에서는 착상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계획이 추진되는 등 관련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나가사키 상공회의소 회장은 나가사키 베이 에어리어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 유치를 희망하며 산업 육성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 후쿠오카현, 트럼프 관세 영향 기업 발생... 2차 대책 협의회 개최 - 후쿠오카현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제2차 종합 대책 협의회를 개최함. 이 회의에서 현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현내 일부 기업들이 이미 영향을 받기 시작했음을 보고하고, 특별 용자 제도 운영 계획 및 기업 대상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예정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함.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모습 - 후쿠오카현이 운영하는 상담 창구에는 트럼프 관세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업들의 문의가 24일까지 십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특히, 공작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미국으로의 수출 주문이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상담한 것으로 알려져, 관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현은 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5월 중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현내 1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과 도매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수출 현황, 관세 영향 정도, 현에 바라는 지원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5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
	○ 시즈오카현 기업 51%, 인력 부족으로 '부정적 영향' 경험 - 민간 조사기관인 도쿄 상공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시즈오카현 내 기업 중 51.3%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2025년 춘계 노사 교섭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력난이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영향이 두드러짐 - 인력 부족의 부정적 영향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대기업(57.1%)이 중소기업(51%)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산업별로는 2024년 문제로 시간외 노동 규제가 강화된 건설업(77.8%)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제조업(57.1%)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뒤를 이음. 반면 부동산(0%)과 소매업(25%)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 -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으로는 '기존 직원의 작업 부담 증가'(52%)가 가장 많았고, '기존 직원의 노동 시간 증가'(40%), '수주나 내점 예약 거절'(38.7%) 등이 뒤따름. 이는 직원 만족도 저하는 물론 기업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줌. 도쿄 상공 리서치는 임금 인상 외 업무 효율화, 유연 근무제 도입 등 다각적 대책 필요성을 강조
	○ 홋카이도 전력, 스나가와시·나이에초와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등 협력 협정 - 홋카이도 전력(호쿠덴)이 홋카이도 스나가와시 및 나이에초와 각각 지역 탈탄소화 촉진 및 폐지 예정인 석탄 화력발전소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포괄적인 연계 협정을 25일 체결함. 해당 지역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는 노후화로 인해 2027년 3월 가동 중단 및 폐지가 결정된 상태로, 광활한 부지의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 - 이번 협정을 통해 호쿠덴과 두 지자체는 폐지될 발전소 부지에 재생 가능 에너지 시설을 유치하거나, 에너지 관련 사업 외 다른 형태의 산업 시설 또는 지역 활성화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임. 호쿠덴은 탈탄소화 관련 기술 지원과 함께 부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함.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 또한, 호쿠덴은 자사의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나가와시와 나이에초의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두 지역의 특산품을 호쿠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임. 사이토 신 호쿠덴 사장은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 표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 태국 수출입은행, 美 관세 영향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 태국 수출입은행이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발표함. 약 3,700개 태국 중소기업이 이번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출 손실액은 76억 달러(약 10조 8,6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 지원책의 일환으로 태국 수출입은행은 '수출 클리닉'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부채 상환 기간 연장, 유동성 지원, 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임. 또한 미국 관세 정책 하에서의 사업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제공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노력 - 금융 지원 외에도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 2024년 태국 총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8% 기록
	○ 태국 3월 수출 17.8% 증가, 9개월 연속 성장 및 3년래 최고치 - 태국의 지난 3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함. 이는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시장 예상치였던 13.5%와 전월 증가율 14.0%를 모두 상회하는 호실적임. 태국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여부가 주목 - 주요 시장별 실적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34.3% 급증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22.4%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반면 수입은 10.2%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는 9억 7,000만 달러(약 1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함. 이는 예상치 1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1억 달러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 - 태국 상무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이에 따른 각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대외적인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3,010억 달러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2~3%의 수출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긍정적 기대 유지
	○ 태국 내각, 외국기업법 개정안 승인… 투자 환경 개선 박차 - 태국 내각이 지난 4월 22일 투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기업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 이번 개정은 특히 스타트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 의지 표명 - 태국 법제개혁위원회는 25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외국기업법이 미래 산업과 신생 기업 지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재무부 역시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기업 '보호'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이를 통해 태국 현지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이번 개정안은 재무부, 상무부, 내무부, 노동부,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C), 투자청(BOI) 등 주요 부처의 동의 획득
	○ 태국 정부, 美 관세 대응 5천억 바트 규모 경기부양책 검토 -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약 5,000억 바트(약 18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발표함. 해당 부양책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내수 및 투자 촉진과 더불어 저금리 대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충격 완화가 주요 목적 - 태국은 오는 7월까지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6%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음. 현재 미국 측의 주요 현안 검토 요청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태국 국가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C)와 태국중앙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 - 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약 2.5%로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함. 피차이 장관은 36%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1%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적극적인 재정 정책 예고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26년까지 관광객 3,560만 명 유치 목표 설정 - 말레이시아가 관광객 유치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함. 2024년 2,500만 명 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3,140만 명, 그리고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인 2026년에는 3,5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함. 관광 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광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5년까지 관광 수입 1,255억 링깃(약 35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위해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 190만 링깃을 투입하여 홍보 영상 제작 완료함.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 - 제작된 홍보 영상은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풍부한 문화유산, 대표적인 랜드마크, 다채로운 음식과 쇼핑 명소 등을 매력적으로 담아냄. 각 주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조명하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격적인 홍보 전략과 달리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 방향성은 미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美 관세 압박 속 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말레이시아 국민 방문 기간 중 양국이 30여 개에 달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시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 - 양국 간 협력은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AI), 위성항법 시스템, 녹색 기술,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함. 특히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인프라에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은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려는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 -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등 주요 서방 파트너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또한 유지하려는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최근 역내 경제 통합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양국 협정이 동남아시아 무역 구조 재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MCMC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협약 - 말레이시아 조호르 주 정부가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디지털 인프라 강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 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4월 21일 체결함. 이번 협약은 조호르 주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됨. 주요 목표는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디지털 문해력 향상 - 말레이시아 중앙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향후 2년간 총 3억 링깃(약 8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이 자금은 특히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 SEZ) 내 5G 네트워크 범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임. 이동통신 커버리지 개선에도 집중하여 스마트 기술 및 인공지능(AI) 도입 촉진 계획 - 양해각서에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 설치 확대와 1,169개 산업 단지의 5G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조호르 주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또한, 시민들의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식 제고 및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될 예정임. 포괄적 디지털 전환 추진 의지 표명
필리핀	○ 필리핀, 2040년까지 51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기 - 세계은행(World Bank)이 필리핀이 노동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2040년까지 최대 5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이는 필리핀 경제의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의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의 중요성 강조 - 세계은행은 필리핀 노동 시장의 주요 도전 과제로 생산성 및 혁신 촉진의 필요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개선, 내수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 극복 등을 지목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혁 방안으로는 섬 간 연결성 강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 역량 개발, 규제 절차 간소화, 아세안 등 역내 경제 통합 촉진 등을 제안 -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와 노동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정책 자금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특히 물류 시스템 개선, 교육 시스템 현대화, 재정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누에바에시하 농기계 산업단지에 한국 투자 유치 추진 - 프란시스코 티우 라우렐 필리핀 농업부 장관이 누에바에시하 주에 조성 예정인 20헥타르 규모의 농기계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KAMICO)을 직접 방문하여 논의를 진행함.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해당 지방 정부는 이미 2024년 10월 한국농기계산업단지(KAMIC)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 필리핀 농업부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6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이후 법인세율 5% 포인트 인하(25%→20%)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함. 이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측은 회원사들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과 조건에 대해 필리핀 통상산업부와의 추가적인 후속 회의를 요청하며 신중한 검토 의사 표명 - 라우렐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의 농기계 기업인 아시아테크와도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동양물산과는 커피, 카카오, 양파, 코코넛 등 필리핀의 주요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에 특화된 농기계 생산 방안에 대해 협의함. 이는 필리핀 농업 현대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는 실정
베트남	○ 베트남, 美 관세 회피 목적 불법 환적 단속 강화 - 베트남 통상부가 미국 및 기타 주요 교역국으로 향하는 상품의 불법 환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4월 15일 발표함.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 무역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됨. 국제 무역 질서 준수 의지 표명 - 베트남 통상부는 이러한 무역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수입품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강력히 경고함. 베트남은 수입품의 약 4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이 베트남을 주요 경유지로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상황임. 양국 간 통상 마찰 우려 -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했으며, 현재 시행은 7월까지 유예된 상태임. 전문가들은 만약 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베트남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며 베트남 경제의 하방 위험 증대 경고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